

홀로 또는 함께... '버티는 삶'에 반기 든 율로족

〈YOLO·You Only Live Once〉

트렌드 2017 결산<상>

올 한해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과 기득권의 '갑질' 물의 등으로 이 시대의 '휴수저'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국민은 가만있지 않았다. 20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는 '촛불'을 들어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의사를 표현했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욕구는 사회·문화 전반으로 퍼지며 새로운 생활상으로 나타났다. '혼밥족', '일코노미'에 이어 올해 '나 홀로' 문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심화됐다. 현실에서 즉각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소비·취미활동으로 자존감을 높여려는 '나 홀로'족이 올해 문화 경향을 이끌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자는 '율로족'은 여행과 취미생활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세상의 중심에서 '율로'를 외치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에 반기를 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왕지사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자는 'YOLO'(율로·You Only Live Once 앞글자만 따 말)를 실천하는 생활이 20~30대 사이에서 열풍이었다. 지난해 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를 홍보하면서 'yolo, man'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은 전보이자 율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 오르기도 했다. '사축(社畜·회사의 가축)', 직장살이, 워홀족 등 현대인의 좌절을 담은 율로어가 나온 것과 맞물려 율로는 하나의 해방구로 작용했다. 돈을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율로족은 여행과 취미생활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즐겁게 놀아볼까'를 지상 과제로 삼은 이들이 광주서 뭉쳤다. 지난해 결성된 '축제헌터'(Hunter)다. 말 그대로 전국의 '핫'(Hot)한 축제를 따라다니며 한 탕 놀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전남대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졸업반에 다니고 있는 '공대생' 정상훈(26)씨가 대표격인 '헌터장'을 맡았다. 유명한 락·디제이 페스티벌의 경우 입장료에 교통, 숙박비까지 혼자 가기에는 20만~3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정씨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가면 돈도 절약하고 신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축제헌터를 기획했다. 축제헌터에는 고등학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연령과 직업이 다양하다. 축제헌터는 각자 전공에 맞게 기획팀, 운영팀, 촬영팀 등 역할을 맡아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는 모습은 달라도 좌우명은 마찬가지다. "인생은 락앤롤(Rock&Roll)".

짧지만 힘있는 메시지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할 때 자주 쓰인다. 해시태그는 지난 2007년 트위터에서 게시물 분류와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표시였는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영토를 넓히다 '사회운동'을 만나게 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장형 해시태그로는 '#그런데최순실은'을 꼽을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도록 모든 게시물 끝에 '#그런데최순실은?'을 붙이지는 제안이 나오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피켓, 현수막 등 선전물에도 쓰이면서 이 문구는 전국을 뒤덮게 됐다. 이를 변형한 수많은 해시태그도 쏟아졌다. 국가적·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는 해시태그가 나오게 됐다. 한국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불거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전의 해시태그는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픽스타그램', '#립스타그램', '#에스타그램' 등 먹방·연애·육아 등 일상적인 주제 중심으로 사용됐다. 게시물에 달린 해시태그는 많은 사람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역할을 해왔다.

오바마도 외친 '율로' 20대 잠언으로 의사표현 창구된 SNS 해시태그 '#휴수저의 집단고발 #그런데최순실은' 소비보다 공유... 체험형 콘텐츠 인기 연필 깎기 모임 등 이색 여가활동도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모모(More Mobile) 세대'에게 SNS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해시태그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데 사용되면서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다.

사는 것보다 정성...SNS로 높아진 DIY

갖고 싶은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DIY(Do It Yourself) 문화가 이젠 SNS로 영역을 넓혔다. 요리나 공예품의 재료를 구입해 직접 만드는 방법이 페이스북 등에서 인기를 얻었다. 스스로 만들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점에서 DIY는 '스테디셀러'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메이커스가 운영하는 딩고(Dingo) 스튜디오는 음악, 음식, 패션 스타일, 여행 등을 주제로 2~3분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낸다. 이 영상은 모바일 기기용 시청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된다. 이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 만드는 법', '여행가서 스마트폰으로 멋지게 사진 찍는 법', '1000원 가게에서 산 장식품으로 파티장 꾸미는 법', '3분 파티 룩(Party Look)' 등 수

많은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마음껏 해보는 것'으로 소비 유형이 변하고 있다. 소비보다는 공유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합리적인 소비 태도라 할 수 있다.

내 방식대로 '심플 라이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문구처럼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를 온몸으로 외치고 있다. 나만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최대한 조용하게 보내고 싶다면 당신도 '심플 라이프'(Simple Life)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다잡는 목적으로 동호회가 결성되는가 하면, 관광 대신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휴가를 보내는 20~30대들이 늘고 있다.

재기 발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온 광주지역 사단법인 '청년문화허브'는 지난 4월 '연필 깎기의 정석'을 주제로 소모임을 만들었다. 장난 하나요? 이들은 제법 진지하다.

동호회원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 'HB 연필 깎기의 정석'(2013년)을 함께 읽으며 연필 깎기에 심취한다. 이 책에는 '문필가,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목수, 기술자, 공무원, 교사를 위한 장인의 손이 담긴 연필 깎기의 이론과 실제'라는 거창한 부제가 달렸다. 회원들은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데 모두 연필 깎기의 장인이 되고 싶어하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들은 연필을 정성 들여 깎는 과정에 몰입한다. 책의 저자는 연필 깎기를 역도나 번지점프, 활소타기에 비유한다. 연필 깎기를 하기 전에는 몸이 개운한지,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장인의 시범에 따라 몇 분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회원들은 연필 깎기를 하다 들으며 사색에 빠진다.

휴가를 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शल'과 '스트레스'가 공존한다. 숙소, 교통편, 동선 등 계획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오히려 짜증만 키운다. 어렵게 얻은 휴가로 피로감만 더할 바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 휴가'를 보내자는 흐름이 강하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뜻하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은 직장인의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박해광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를 만끽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현상을 "기성 노동 윤리에 저항하는 유희 문화 중 하나"로 평가했다. "기성세대는 열심히 일하라고 권하지만 실상 노동의 결과물 대부분을 기성세대가 가져간다"며 "이를 목격한 20~30대가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끔 무위도식하는 여가를 보내는 것은 재충전하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파악한 현대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묻혀 여유를 찾는 삶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백희준기자 bhi@kwangju.co.kr



광주서 결성된 '축제헌터'는 전국의 축제를 다니며 놀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축제헌터 제공>



(청년문화허브의 소모임은 매주 한 번씩 모여 책 'HB 연필 깎기의 정석'을 함께 읽으며 연필 깎기에 심취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